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기간에는 매 주일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강절 연속기도회가 12월 15일(월) ~ 24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각자 편리한 시간을 미리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사랑방 후반기 모임은 이번 주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 멧쟁이학교 종강여행이 12월 2일(화) ~ 5일(금)까지 서천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워크샵이 12월 6일(토) 아브라함 장막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김중필 · 이현숙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한호남 집사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48호

2025년 11월 3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감사의 마무리와 기대의 시작

짧게 느껴졌던 가을이 지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걷이를 다 끝마치고 추워지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작물들을 다 거둬드린 다음에는 내년을 위해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김장을 들 수 있는데 직접 김장을 버무리는 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데 사용합니다. 배추를 뽑고 절이고 갖가지 양념을 준비하는 것에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마무리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은 우리의 큰 바램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칫 시작을 크게 하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를 두고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인 용두사미(龍頭蛇尾)의 사자성어를 사용하여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만큼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기상으로 11월을 마지막으로 보고 12월부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의 대강절은 기독교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의 기간으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등으로 불리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양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양과 지키는 명절이 다릅니다. 서양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사의 의미를 담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27일을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보낸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선교와 섬김**

나눔에 감사의 의미로 칠면조를 잡고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되어 워싱턴 대통령 시절 처음 국경일로 삼아서 20세기에 들어서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법정공휴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로 삼습니다. 한국의 추석과 같습니다.

교회력의 시작하는 12월 전 주간인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작 전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마무리의 중요성을 말했었는데 우리는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의 기준으로 본다면 마지막의 맺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요.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과 한해를 정리하며 고마움으로 마무리 하면 함께 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레 웃음 지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감사와 고마움으로 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희망과 기대 속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대강절 첫주를 맞습니다. 감사함과 새로운 기대로 마무리와 희망을 갖는 시간으로 지내기는 사랑방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종강발표회가 있는 주간

기말면담, 이 기간에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나눌까 합니다.

이 주간에는 강사 선생님의 수업만 실시하고, 나머지 수업은 대부분 자율학습으로 바꿉니다. 이제까지 없던 시간적 여유가 생긴 멋쟁이들은 종강발표회에 선보일 코너를 준비하거나, 축구나 낮잠같은 활력 보충의 한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낮에 여유롭게 보낸 나머지, 면담이 끝나고 새벽에 생활관에 돌아오니 잠이 안 온다며 신나게 수다를 떠는 남학생들도 여럿 볼 수 있었을 정도였지요.

수요기도회가 끝난 이후부터 강대상을 내리고, 오르간을 옮기는 등 교육관 세팅에 큰 변화가 옵니다. 이때쯤 되면 시각적으로 종강발표회 날과 비슷해져서, 간판제작을 하는 미화팀은 물론이고 모두의 마음 속에 발표 날이 가깝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선택지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게 된 것이죠. 춤을 출지, 영상을 편집할지, 복장 연구를 할지, 악기를 연습할지 말입니다. 와중에 부모님께서 주신 간식으로 행복과 사랑을 한껏 느끼기도 합니다. 너무 맛있고 즐거워서 과식하거나 탈이 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주말이 다되면 이제는 부족한 시간 속에서 조급한 마음이 고개를 쳐듭니다. 밤시간까지 활용해서 마감에 맞추려는 멋쟁이들이 많아집니다. 문서부는 코이노니아 소식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학생회는 리허설을 지휘하며 원활한 발표회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 와중에 6학년은 인생 마지막 기말면담을 진행하며 감동스런 마무리들을 이어갑니다. 물론 마음이 급해 질 수록 이상하게 문제 상황들도 덩달아 생기곤 합니다. 멀쩡했던 영상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면, 춤을 춰야 하는데 발목을 삐끗하거나, 열심히 만들었던 문서가 날아가 버리는 일 등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100%의 상태로 보여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좋은 발표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청춘스러운 노력은, 옆에서 지켜보는 저에게도 참 깊은 감명과 배울 거리들을 줍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기간은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행복한 때이기도 합니다. 무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복에 머물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563장, 570장

성 경 : 마가복음 9장 33-37절

말 씬 : 섬기는 자가 큰 자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 나이지리아 피랍학생 >

나이지리아의 한 가톨릭 기숙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315명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 괴한의 집단납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북서부 케비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25명이 납치됐고, 18일에는 서부의 한 교회에서 무장 괴한이 신도 2명을 살해하고 40여명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 오두막공동체 >

- 1) 생태자립마을 만들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2)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 3) 연해주와 북한, 아프리카 선교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어린이학교 여행을 위해
- 2) 지역별 사랑방 방모임 마무리

< 생활공동체 소식 >

아침마다 마당 곳곳에 하얀 서리가 내린 걸 보니 이제는 진짜 겨울인가 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낙엽은 치워도 티가 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쓸고 모아 밭에 뿌려둡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모으는 생활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
<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80, 292 / 309
기도 : 이윤순 집사
성경 : 누가복음 4장
제목 :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1. 내용: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다 (What)
<문단구분>
1~4절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
5~15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1
16~30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2
2. 의미: 관점이 바뀌게 되다 (Why)
 - 1) 갈등을 피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
 - 2) 서로 관점이 달라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 3) 예수를 만나지만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다.
3. 적용: 분별 하는 삶을 살아가자 (How)
 - 1)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자.
 - 2)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
 - 3) 주변의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예수를 전하자.

지난 토요일, 방식구들이 모였다. 교회 마당에 수북한 낙엽을 보며 참 예쁘다! 중얼거렸다. 주일 아침에 ○집사님이 치우실 것을 알면서도 공연히 낙엽을 쓸어 모았다. 가을 냄새가 지나간다.

우리 방식구들은 교육관을 먼저 정리했다. 로봇청소기 덕분에 밀대 미는 것은 생략하고 의자를 먼저 놓기로 했다. 남자 집사님이 의자를 내려주면 우리는 의자를 줄을 맞추어 놓는다. 그 다음에 방장님이 준비해온 걸레를 꼭 짜, 닦기 시작한다.

주님, 이 자리에 앉는 분에게 함께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또 다음 의자를 닦으며, 주님, 이 자리에 앉는 분에게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해주세요. 또 다음 의자로 옮겨가서, 주님! 이 자리에 앉는 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 다음 의자를 걸레질하며, 주님! 아시지요, 이 분의 기도에 얼른 응답하여 주세요, 중얼거리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 가슴이 팍 찬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맨 앞에 있는 오르간과 피아노를 닦으며 주님, 은혜 충만한 반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교육관 정리를 마친다. 화장실정소는 ○집사님이 항상 하신다. 고맙게도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신 듯 양보하지 않고 봉사하시니 난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자연예배당 현관의 먼지를 쓸고 신발장도 모래를 제거하고, 나무판을 반듯하게 놓으면 청소가 끝난다. 마당 데크에 낙엽은 ○집사님이 물어버리고, 나무상은 깨끗하게 닦고, 야외등도 맑게 닦고, 방식구들은 모여 앉아 준비해온 차와 떡을 나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좋다는 등, 좀더 젊어 보인다는 등, 좋았던 일, 근심거리,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는다.

참 좋다.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일 것이다. 올해는 지키미순서가 다행히 한번 더 남았다. 우리 방식구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준비해 와야겠다.

따뜻한사랑방 이윤순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미가서 5 : 2	인도자
* 예배의 찬송	32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 용서의 말씀		다함께
* 신앙고백		인도자
고백의 찬송	87, 120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요한복음 1 : 1-18	설교자
성가대 찬양	104	그루터기사랑방
설 교	“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53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410(3)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양기모 이승호 / 봉헌위원 : 김병우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태초의 말씀. 사도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선언하며 첫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태초는 영원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더불어 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만물의 시작인 창세기의 태초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말씀은 Logos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음성’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 Logos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Logos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Logos는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육화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이윤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을 배웠습니다. 버릴 물건들을 보며 어떻게 할까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페트병에 붙은 라벨지를 떼어내고 음식이 묻은 건 속을 행구어야 하고 종이에 붙은 테이프는 떼어내고, 깨끗이 모아야 함을 확인합니다. 글씨는 잘 모르지만 재활용 기호를 확인하며 유리, 플라스틱, 투명페트, 캔, 종이, 스티로폼, 비닐류 등을 배워봅니다. 송아지반 동생들은 아직 어려운지 엉뚱한 자리에 가져다 놓기도 하는데 곧 언니들이 다시 알맞은 자리로 옮겨줍니다.

꾸러기차에서 기후변화, 플라스틱 등등에 대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유곽은 밟아서 납작하게 만들라는 가사를 듣고 잘 펼쳐서 행귀야한 다 동네마다 다르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다물 온도가 올라가 산호가 색을 잃는다는 가사에 미역이랑 김도 하얗게 변할까 묻기도 합니다. 집을 지켜달라는 노래에 북극곰이랑 투발루랑 쓰레기가 떠다니는 바다에 사는 고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걷기, 전등끄기, 쓰레기 줄이기 등등을 잘 해야한다고 자전거도 배워야한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감기와 독감이 꾸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 이번주 날씨는 아주 맑고 청명했습니다.

독감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튼튼한 새싹이 돌아서 한명도 아픈친구 없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시립박물관과 도자기미술박물관을 방문해서 관람을 하고 도슨트로 쉽게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쌀밥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밥이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사실 실제 날씨는 좋지 않았습니니다. 가는날 비와 우박이 내렸고, 마지막 날에도 비가 많이 내려 원래 하려했던 자연나라의 일정을

배움과 가르침

취소하고 실내 바운스에서 실컷 놀았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여행이라 두차례의 찐한 피드백을 하며 어린이친구들이 일년새에 많이 성숙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소리도 쓴소리도 모두 잘 소화해 내는 우리 어린이들이 참 대단합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학기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멋쟁이학교에서는 기말면담으로 한 주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서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가지 숫자로 정리되는 과목 성적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피드백과 다양한 시각에서의 경험들이 한 데 모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멋쟁이 학생들 입장에선 긴장이 크지만, 대부분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고백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멋쟁이들은 성장의 여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서 기말면담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멋쟁이들은 토요일에 기다리고 있는 종강발표회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상 편집, 댄스 연습, 악기 연습, 문서 작성, 기말면담과 평가서 작성 등으로 밤낮없이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들께서 맛있는 식사와 간식으로 응원하여 주시고, 졸업생 선배도 자기일처럼 도와주어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들뜨고 긴장되는 대망의 당일날, 많은 손님들께서 자리에 앉아 계신 가운데 종강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발표회였는지는 이후 업로드 되는 영상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종강발표회를 여럿 보아왔다고 자신하는 저도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넘더라도 이걸 빼놓을 순 없겠지요. 올해의 멋쟁이상 수상자는 5학년 이훈인 멋쟁이로 당선되었습니다. 멋쟁이들이 대견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에 고개 숙이게 되는 그런 종강발표회였습니다.

다음 주는 한결 편한 마음으로 서천 지역을 향해 종강여행을 떠납니다. 여러가지 좋은 추억을 남기는,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